

이회성의 새로운 상상력과 구성의 전환점

- 『유역으로』를 중심으로-

양 명 심*

(e-mail: ms0611@konkuk.ac.kr)

目次

1. 서론
 2. 작가의 창작의식의 변화와 『유역으로』
 3. 고려인(高麗人)들의 민족서사와 ‘재일’
 4. 재일디아스포라의 기억의 확장
 5. 결론
-

1. 서론

『군상(群像)』 1992년 4월호에 게재된 『유역으로(流域へ)』¹⁾는 이회성(1935~)이 1983년에 쓴 기행 『사할린 여행(サハリンへの旅)』(講談社) 이후 10년 가까운 공백 기간을 거쳐서 발표한 작품이다. 이회성은 1989년 8월, 일본문학자 오다 마코토(小田実)의 소개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문학자와 교류하고, 구소련작가 동맹의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약 한 달간 방문²⁾하였다. 이회성은 당시 중앙아시아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유역으로』를 작품으로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³⁾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듯 소설이면서 르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장편 『유역으로』는 당시의 취재여행에서 보고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1) 「유역」은 『군상(群像)』 1992년 4월호에 발표된 이후 수정, 가필되어 1992년 6월 『유역으로(流域へ)』 단행본(講談社)이 간행되었고, 2010년 3월에 또 한 번의 수정을 거쳐 문고본(講談社文芸文庫)이 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1992년 『유역(流域)』 번역본(김석희 옮김, 한길사)이 출판되었다. 본고에서의 인용과 분석은 2010년 문고본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磯貝治良・黒古一夫編 『<在日>文学全集4』(李恢成年譜) 勉誠出版 2006 p.418

3) 李恢成 「著者から読者へ」 『流域へ』(下) 講談社文芸文庫 2010 p.314



金贊汀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 (上)
『民濤』9号 1989년 12월

들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1980년대 후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격동의 시기에 있었다. 공산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개혁, 개방과 함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으며, 특히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1989년은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바로 다음해로 정국이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문익환, 황석영의 방북이 이어지면서 공안정국이 시작되고 임수경이 평양의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한 해이기도 하다.⁴⁾ 이 글에서 다루는 이회성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존의 문학 활동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로서 문필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을 체험하고, 또 일본과 한국 문학자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재일’이라는 틀 속에 세계사적 의미를 발견하려 하였다. 또한 그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민중 문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계간 재일 문예 『민도(民濤)』⁵⁾를 창간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유역으로』에서 설정된 한 달간의 취재여행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인식이 ‘여행의 경험’과 ‘기억의 경험’으로 혼재되어 서술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고찰하기 위해서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텍스트 분석에 앞서 1992년 초출발표 이후 2010년 문고본 『유역으로』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주요 이동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표현의 변인을 살펴본다. 둘째, 서술자가 ‘소련 조선인(고려인)’들의 강제이주를 둘러싼 생생한 증언을 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고찰함으로써, ‘재일’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한 개인의 기억이 재일디아스포라⁶⁾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서사에 주목함으로써, 이회성 문

4) 文京洙 『韓国現代史』 略年表 岩波新書 2005 p.12

5) 계간재일문예 『민도(民濤)』 (전 10권) : 1987년 1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0년 3월 중간호 10호에 걸쳐 발행되었다.

6)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최근에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확대되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에 대해서 재일조선인 서경식은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한 바 있다. (『디아스포라기행』 돌베게 2006) 재일조선인을 일괄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통칭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학의 전환기에 내포된 문학사적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회성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 『유역으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작품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국문학 쪽에서 먼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최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일조선인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흐름에서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⁷⁾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사의 관점에서 『유역』을 분석하면서 20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국가’, ‘민족’ 이데올로기와 현실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이회성의 민족 비극의 추적이 90년대의 대표작 『유역』과 『백 년 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신조(新潮)』 1994년 7·8월)에 이르러 세계사적 지형으로 확대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환기⁸⁾는 『유역으로』를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학 속에 내재된 디아스포라 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회성 문학은 역사와 민족, 정치와 이념을 그리면서 동시에 디아스포라 의식의 열린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행 논문은 모두 이회성 문학의 전환점의 중심에 있는 『유역으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디아스포라 의식과 제일조선인 디아스포라 의식을 고찰하고 있지만 두 논문은 모두 1992년의 『유역으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과 201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창작된 『유역으로』의 시대흐름에 따른 표현의 변용과 작가의 민족 형상화의 변화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회성 문학이 내포하는 디아스포라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작가의 창작의식의 변화와 『유역으로』

『유역으로』는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는 제일조선인 소설가 임춘수와 르포 작가 강창호가 ‘37년 문제’⁹⁾라고 하는 연해주의 조선인 강제이주 사건을 취

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서경식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강제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조국을 떠나 정주국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소수자로 살아가는 제일조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아스포라 또는 재일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7) 정은경 「‘국민’과 ‘비국민’-이회성 작품에 나타난 20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루트와 내러티브」 『어문논집』 제45집 중앙어문학회 2010 p.67
- 8) 김환기 「제일 코리안 문학과 디아스포라-이회성의 『유역』을 중심으로」 『일본학』 제3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 p.138
- 9) ‘37년 문제’는 군국주의 일본이 중국에 대한 전면침략전쟁을 개시한 1937년 극동 연안의 남부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이 일본군의 소련 침략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172,000명의 고려인이 잡자

재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거쳐 카자흐의 알마아타로 건너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알마아타에서의 취재 후 타시켄트로 이동하여 우즈벡 공화국의 동포의 실상에 대해 조사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일본으로 귀국하는 여정이다.

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칭의 절제된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왕복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취재대상이 되는 고려인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기억에 의해 서술되는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작품속의 등장인물은 스무 명이 넘는다. 소설 자체가 르포 형식을 취하고 있듯이, 등장하는 인물의 대부분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소설이 의도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0)

「유역」은 『군상』 1992년 4월호에 처음 발표된 후, 두 번의 수정을 거쳐 2010년 3월 문고본(講談社文芸文庫)으로 완성되었다. 작품의 내용상 의미 변화가 없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문고본 『유역으로』에는 작가의 창작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수정, 가필, 삭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2년 창작 이후의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한 분단조국의 현실과 제일조선인 사회의 변화, 그리고 작가의 개인사적 체험을 통한 조국관과 역사관의 변화가 이후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초출과 문고본 사이의 주요 이동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밑줄 인용자)

	이동	초출	문고본	비고
1	수정	春洙はお礼をいい、近く自分はソウルに行くつもりだと決心を洩らした。彼が驚いている様子は受話器からも伝わってきた。当時、韓国は「左」の思想を持つ者にとっては禁	【上77】 春洙はお礼をいい、 <u>自分は朝鮮籍のまま、臨時パスポートでソウルに行ってきたと事実を洩らした。</u> 彼が驚いている様子は受話器からも伝わってきた。当時、韓国は「左」の思想を持つ者にとっては禁断の土地だった。しかし春洙は韓国のある新聞社からの招待を受け、 <u>その誘いに乗って入った。</u>	

기 스탈린하의 소련에 의해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로 강제이동당한 사건을 말한다. (和田逸夫 「李恢成 『流域へ』 -民族の再生と生き方の模索」 『民主文学』 1993년 6월)

10) 임춘수(이회성), 강창호(김찬정), 라블렌치 손(카바렌치 송), 라블렌치 손의 어머니(박묘진), 빅토르 박(빅토르 김), 박일중(초출에서는 백승중, 박 일 전 북한 김일성대 부총장), 장일(정상진, 전 북한 문화부 차관), 유진(한진), 박진(허진(허용배)), 하진(리진(리경진)), 한쪽 눈이 실명한 고려인 할머니(도영순, 아버지 도순명)

괄호 안의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에 관한 것은 1989년 이회성과 취재여행에 동행했던 김찬정의 르포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 (上), (下)」 『民涛』 9号, 10号)와 신인섭(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집)에서 시사를 얻었음.

11) 텍스트 인용은, 초출은 『流域』 (『群像』 1992년 4월), 문고본은(『流域へ』 (上)·(下) 講談社文芸文庫 2010년 3월)을 사용하고, 쪽수는 문고본만 기재한다.

		<p>断の土地だった。しかし春洙は韓国のある新聞社からの招待を受け、その誘いに<u>乗って入るつもり</u>で<u>いた</u>。</p>	
2	첨가		<p>【上240】春洙は厭わしそうにさぎった。もう何回かそんな荒唐無稽な作り話のために煩わされてきたのだった。そして、<u>それが在日文学者のあいだに壁をつくっている</u>。</p>
3	첨가		<p>【上199～200】そう。一年かそこらでしかない。短い沈黙があった。朴教授が溜息まじりにまた喋りはじめた。帰国の支度をして飛行場に向ったときのことだ。途中、わたしが乗った自動車が止り、ある將軍に別れの挨拶をして出発することを勧められた。(中略)そこには金日成直筆の記念サインも入っていたのだが――あとかたもなく失くなっていた。金日成は、<u>自分にとって都合の悪い過去とその証拠はすべて消してしまうのだ</u>。彼が画策したのはまちがいない。むろん、実行したのは彼の手下といえる。だが、金日成の承認を得ずに何事も行なわれる国柄ではなくなっていたのだよ。このわたしが、南朝鮮から北にやってきた指導者とも接触したのがたぶん金日成には不快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p>
4	첨가		<p>【下259～262】なぜか、ふいにあの男のことを考えた。「ぼくは」と春洙は息苦しいおもいに駆られて告白した。「。。。ぼくこそ親不孝というか、父親にたいして冷やかな息子にすぎません。ぼくにとって、父親はいつも『あの男』でしかなかった。むろん、これは軽蔑した呼び方にすぎません。日帝時代は樺太で『協和会』の幹部をしていて、ソ連軍が上陸してきた後は、一族を捨てて自分の家族だけ連れて日本に逃げ出そうとした人間をどうして誇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ぼくはその息子です。</p> <p>(中略)「それは。。。」と兪真が遮った。顔をくしゃくしゃにしているのが印象的だった。どこか、人間的に味わい深い顔付きだった。「…林先生、失礼ですが、それはあなたの僭越な考え方で<u>すよ</u>」「なぜですか?」「あなたのお父さんは逃げ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境遇だったからです。それを</p>

			<p>エゴイズムだといって、<u>安易に否定できるでしょうか。それにいくらなんでも『あの男』という呼び方は、『天に唾する』ようなものですね。あなたはまちがっている…</u>」(中略) 春洙はふいに目が醒めるような気分だった。それにしても、<u>兪真がこんなまじめに反論してきたことに内心はげしいショックをうけていた。「あの解放の年、サハリンに進攻した極東ソ連軍の秘密警察の中には高麗人がまじっていました。私はそのことを知っています。彼らは同族の『協和会』幹部を摘発するという血も涙もない行為を彼らはソ連人として愛国主義に燃えてやったのですよ。しかも、同族同士が逮捕したり逃亡しようとしていた。哀しい現実ではありませんか。あなたのお父さんが家族だけ連れて命からがら日本に逃げようとしたのを一方的に責められるでしょうか。これはどっちが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戦争が生んだ運命ですよ。(中略) 私は自分の父の苦悩を考えてみる年になったせいか、林先生のお父さんをあなたが『あの男』呼ばわりするのを聞くと、なんてことだという気がしてなりません」「…すみません」と春洙はひたいを押え低い声で謝った。両手で顔を覆った。わざと度を過ぎた非難がましい言い方をしていた自分が限りなく未熟に思えた。そのときになってあの父が解決できなかったことを息子として解決していくことがこの地上に残されているのだとはじめて悟ったような気持ちになった。はたしてそんなことができるか、おおいに疑問なのだが。</u></p>	
5	첨가		<p>【下263】よしんば北朝鮮に戻ったとしても、<u>そこでも核開発をしているとすれば、どうなりますか。世界がこんな風になると、人間はどこに行っても流域ですよ。どこもかしこも、流刑地なんです。人間は、行くところがあるようでいてない存在です。</u></p>	
6	수정	<p>あの男のことを思い出させられたからだ。<u>あの男もクリミア・タタールさながらに民族の名誉を汚した。</u></p>	<p>【下281】<u>父のことを思い出させられたからだ。父もクリミア・タタールさながらに民族の名誉を汚したことになる。</u></p>	
7	수정	<p>こんどの旅では<u>印象深い人々に</u>会えて幸せでした。</p>	<p>【下310】<u>こんどの旅ではあなた(兪真, 인용자)に</u>会えて幸せでした。</p>	

초출과 문고본 사이의 이동관계에서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국적 취득으로 위한 작가의 조국관의 변화이다. 이회성은 1995년 3번째 한국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국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1998년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 변경에 대해 이회성은 당시 한국의 문민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본국의 복잡한 정치현실과 역경에 재일조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내린 결정¹²⁾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한국국적 취득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비판을 받았고, 국적변경 배경을 놓고 같은 재일조선인작가 김석범(1925~)과 뜨겁게 논쟁¹³⁾을 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을 변경하기 이전에도 조선국적인 그의 한국 방문실현을 둘러싸고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회성은 1972년 일본에서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해에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초출에서는 한국방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문고본에서는 한국방문에 대해서 ‘계획’이 아닌 이미 다녀 온 적이 있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몇 번이나 공언했지만,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도 북도 내 조국이니깐요. 가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241)라고 작품 속에서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또한 초출에서는 생략된 김일성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박일종 교수가 북한 김일성 대학의 부총장으로 파견되었을 당시의 기억을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동은 1992년 작품 『유역으로』에서 처음으로 작품화했던 북한으로 귀국하여 죽음을 맞은 사촌형에 대한 죄의식을 문고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으로 치환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버지’와 관계된 중요한 이동 중의 하나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초출에서는 ‘그 남자’로 일관했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문고본의 결말 부분에 이르러 ‘유진’에게 고백하고 위로받음으로써 ‘아버지(父)’라는 호칭을 되찾게 된다. 여기서 오랜 세월 단절되어 있던 ‘아버지’와의 화합을 다시 한 번 모색해 가는 ‘자기구원’적인 춘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이회성의 초기 작품에서도 반복되어 그려져 왔다. 그러나 『유역으로』에서의 춘수는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마음의 부채를 내려놓고 자기해방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

12) 特別寄稿 「韓国国籍取得の記」 『新潮』1998年7月

13) 이회성과 김석범의 국적변경을 둘러싼 논쟁 (磯貝治良 『<在日>文学論』新幹社 2004年 참고)
金石範 『世界』1997年2月, 李恢成 「韓国国籍取得の記」 『新潮』1998年7月, 金石範 「苦難の終りの韓国行」 『文学界』2001年11月, 李恢成 「可能性としての「在日」」 「著者から読者へ」講談社文芸文庫 2002, 金石範 「嘘は如何にして大きくなるか」 『文学界』2002年8月

면서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과거의 고백’을 통한 ‘자기정화’의 모습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흐름에 따른 외재적 요인의 변화, 작가 내면의 역사관, 조국관의 변화가 초래한 『유역으로』의 창작의식의 변화는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전환기적인 이회성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려인(高麗人)들의 민족서사와 ‘재일’

재일조선인 춘수와 강창호는 알마아타 공항의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국인 전용 출입구를 빠져나와 빅토르 박, 라블렌치 손을 포함하여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한 달간의 여행을 시작한다.

이 두 사람과 함께 그들을 초대한 카자흐 공화국 작가 동맹의 유진(兪眞)이라고 하는 조선인 지식인이 안내와 통역을 맡아 한 달간 함께 행동하게 된다. 유진을 포함하여 그의 친구 박진(朴眞), 하진(河眞)은 북조선에서 국비유학생으로 소련에 파견되었지만 당시 김일성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다는 이유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카자흐, 모스크바, 이르크츠크에서 각각 거주 제한을 받으며 서로 분리되어 살아 온 이 세 사람은 삼진(三眞)이라고 하여 동지애를 나누는 사이이다.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연해주지방의 조선인들은 가혹한 분리와 차별정책에 의해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들은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추방당했는데, 당시의 고려인 수는 17만 5000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만 1000여 명이 이동 중에 숨지기도 했다.

한 달 이상 화차에 실려 마치 전쟁시와도 같은 가혹한 조건 속에서 감당해야했던 이주상황을 설명하는 라블렌치 손의 어머니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다. 빅토르 박을 통해 듣게 되는 집단화 정책과 연해주에 조선인 자치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아버지 친구의 이야기, 레닌그라드에서 유학시절 강제이주에 반대하여 박해를 받았고, 당시 스탈린 숙청의 실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박일중 교수, 유진의 스승이며 북한에서 잠시 정부고관을 지낸 적이 있고 37년 문제와 조선의 해방을 체험한 장일의 증언, 어머니의 자살이라는 상처가 있고 현재는 이혼 후 홀로 타슈켄트에서 철도교통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춘수의 사촌 부스, 50년 동안 카자흐에서 추방당한 이른바 반혁명분자를 아버지로 가진 30대 청년 운전사 아만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침묵, 사마르칸트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고려인 할머니를 통해 서술되는 5분 동안의

역사 등. 기억에 의해 서술되는 고려인들의 민족서사는 작품 속에서 박진이 말한바와 같이 ‘유역’에서의 고려인의 삶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선택된 삶,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선택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온 인생임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소설가와 르포 작가라는 직업의 차이가 작품 속에서도 부각되고 있듯이 춘수와 강창호는 고려인들의 과거와 역사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취재방식에서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의견 차는 여행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갈등과 대립구도로 발전해 나간다.

자네는 과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 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사실’도 있을 것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그것들을 분리시키면 역사의 의미가 단순화 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상231)¹⁴⁾

강창호는 고려인의 역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역사의 ‘사실에 탐욕스러운 르포작가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낸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춘수는 ‘뜻밖의 다른 견해’를 추구하며 그들을 통해서 민족과 개인의 다양한 층위로 재일조선인의 삶과 역사 뿐 아니라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과 가족, 친지를 상대화시키고 투영해 낸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동하는 사람의 강인함은 놀라울 정도다. 춘수는 카자흐에서 그것을 느꼈다. 여러 명의 ‘고려인’을 만났지만 누구 하나 비탄을 한탄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동으로 인한 인생의 파란은 끔찍한 것이었을 텐데. 분명 그들은 유역에서의 생활이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변천 끝에 절망해 버린 사람의 용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134)

춘수는 강제이주를 경험한 고려인들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사실’ 추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증언을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재로 확대시켜 사실을 바라보고자 한다. 1세기 이상을 일본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재일조선인을 본 적이 없는 춘수로서는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이 땅에 ‘5대째’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때 가장 먼저 ‘재일’과의 차이를 느낀다.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바꾼 비극적 증언을 들으면서도 그들에게서 춘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한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꾀꾀하게 살

14) 텍스트 인용은 李煥成 『流域へ』(上)·(下) 講談社文芸文庫 2010年3月을 사용하고, 인용문은 1992년 『유역』 번역본(김석희 옮김, 한길사)을 참고로 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임.

아남아 생활하는 그들의 강인함에서 재일조선인들과의 차이를 발견한다. 또한 유진, 박진, 하진의 끈끈한 결속력과 남다른 우정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군성지’를 함께 만들고 있는 동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동인은 여덟 명이었다. ‘조선’적도 있고 ‘한국’적도 있다. 세대적으로는 2세와 3세로 되어있다. 1세 문화인이 도와주고 있지만, 주체는 2, 3세였다. 스탭 중에는 귀화한 동포청년도 있다. 이러한 구성은 ‘재일’ 그 자체의 축도인지도 몰랐다. 돈을 거출해주는 동포 중에도 ‘남’과 ‘북’ 그리고 ‘귀화인’이 있다. (상72)

국적도 다르고 세대도 사상도 제각각인 군성지의 동인들이야 말로 현재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자 나아가 인간세상의 축소판으로 인식된다. 춘수는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와 정착과정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재일조선인들의 실상을 되새기며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돌아가 현실을 바라보고자 한다. 춘수는 고려인들의 삶을 통해 재일조선인을 상대화 시키며 점차 그 속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인간의 보편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결국 민족이 민족으로서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결국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의 제목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도 연결된다. ‘유역’의 본래 의미는 ‘하천이 흐르는 지역 또는 그 하천의 주위에 있는 분수계로 둘러싸인 구역’¹⁵⁾을 뜻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역’¹⁶⁾이라는 단어로 유추해 보면 유역은 유형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유동적인 지역, 역사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유민들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재일조선인의 과거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디아스포

15) 『廣辭苑』第五版 岩波書店 1998

16) · 그러나 젊은 우리는 넓은 러시아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이동금지라는 감시 속에서 살게 되었다.

거기는 **유형지**나 다름없었다.(上57)

· 원래는 ‘조국’에서 느껴야 할 기쁨을 이 ‘외국’에서 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유역**이었다. 사람들은 **유역**에 있으면서 역사의 무게를 견디고, 그때그때의 인간의 우정과 기억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上211)

· **유형지**라는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기분이 든다.(下8)

· 나는 스님은 아니었지만 **유형자**였으니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나그네가 필요로 한 것은 자비심이 강한 여자지요.(下92)

· 분명 그들은 **유역**에서의 생활이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변천 끝에 절망해버린 사람의 용모는 아니었다. 그것이 회미하게나마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下134)

· 이 무더위가 이 **유역**의 문화를 결정했음에 틀림없다.(下193)

· 이 **유역**의 인간의 용모가 사막과 조용하고 있듯이, 건축물은 푸른 하늘과 합류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下194)

· 인간은 어디를 가도 **유역**입니다. 어디나 모두 **유형지**인 것입니다.(下263)

라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는 추상적, 이념적인 공간이자 그들의 과거와 역사의 상처가 있는 곳으로 '유역'을 서술해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작가는 춘수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시점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도는 디아스포라들의 고뇌를 읽어내고 표현해 냄으로써 '재일'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서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재일디아스포라의 기억의 확장

춘수는 소설가이지만 작품 속에서 몇 년째 작품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작가로서 소설을 쓸 수 없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그 남자(あの男)'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단절의식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あの人)'이라고 명명하는 독일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1989년 현재, 작가의 기억은 일본 뿐 아니라 사할린과 독일을 넘나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춘수의 가족서사와 개인의 내면서사가 상처로 기억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춘수의 개인서사로서 작품 속에서 중심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 무렵 춘수는 하나의 주제를 쫓고 있었다. 그것은 그 남자다. 사할린에서 자기 가족들만을 데리고 몰래 도망쳐 나온 협화회 간부. 시베리아 행 그물망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왔고,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부터는 일본에 머물며 '조선인이 되라'고 죽는 날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불쌍한 어릿광대. 세상물정 모르는 아들은 그 사람이 중요한 과거를 감추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그 감동적인 문구를 완고한 민족심 탓이라고만 오랜 세월 생각해 왔던 것이다. (하18)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춘수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는 바로 '그 남자'였다. 1947년 사할린 섬을 탈출할 때 춘수의 아버지는 육친과 친척을 남겨둔 채, 자기 가족만을 이끌고 섬을 떠났다. 섬을 탈출할 때, 아들인 춘수는 그것이 가족과 친지를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회성은 사할린 탈출을 둘러싼 가족사의 진실을 작품 속에서는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섬을 탈출한 원인은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화회 간부를 지냈던 아버지의 이력 때문에 국가 정치 보안부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 아들에게는 죄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죄의식은 현재 가족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버린 춘수 자신의 죄와 겹쳐지면서 한층 더 내

면의 갈등이 고조된다.

‘37년 문제’가 틀림없는 사실이듯, 아무리 작은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이것도 또한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쪽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점에서 공통되었다. 어느 쪽도 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버렸다는 점에서도 같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37년 문제’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람의 운명은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37년 문제’에 얽힌 사람들은 유형살이를 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10)

‘그 사람’으로 명명하고 있는 독일의 심포지엄에서 만난 한국여성에게 춘수는 갑작스레 ‘당신에게서 조국을 발견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운명적으로 끌리게 된다. ‘조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84년 당시 춘수는 소설이 벽에 부딪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그 출구를 모색하게 된다. 일본에 있는 ‘재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조국을 사이에 두고 상징적인 의미의 ‘애인관계’로 발전하며 ‘사랑’을 키워가지만 한국국적을 가진 그녀는 서울에 돌아갔을 때 심문을 당한다. 춘수를 북한의 스파이로 오해하여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하여 한국으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당국의 의심으로 그녀의 조국에서의 삶이 제지당한다. 이렇게 ‘자신이 “죽이고” 조국이 “죽인”사람...’에 대해 춘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역사적 사실에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가담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그녀와의 소식은 끊겼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춘수는 ‘그 사람’을 회상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남자’와 ‘그 사람’에 대한 단절의식과 부채의식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의 경험’과 혼재되어 서술되고 있다.

아버지를 혈연관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설정하며 객관적 주체로 타자화 시키고, 또한 그 여자를 ‘그 사람’으로 객관화시키는 명명법은 기억을 통해 다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새로운 상상력의 시도로 보인다.

저는 다름 아닌 자신이 공포의 대상이 된 인간이니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서운 점은 자신이 더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하252~253)

작품을 한 줄도 쓸 수 없었던 춘수는 유진의 작품 『공포』 17)를 읽고 감동을 받는다. 강제이주가 고려인에게 끼친 비극성을 고발하고 있는 『공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세계를 그리면서 어느새 인류 공통의 운명, 인간의 공통된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다. 유진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춘수는 『공포』가 두 세대에 걸친 아버지와 공동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유진과 소설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춘수는 둘 다 사람을 버리고 이동, 이주와 관련되어 있고 타인의 죽음과도 깊게 운명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서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살인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춘수는 유진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그 남자’로 타자화 시켜 부를 수밖에 없었던 단절된 아버지와 관계를 ‘고백’하고 ‘그 사람’과의 일을 고백함으로써 자기구원의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비로소 ‘그 남자(あの男)’에서 ‘아버지(父)’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죄의식을 ‘인간적인 약점’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1964년 29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쓴 이회성의 초기작품 속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재일조선인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직접적 원인 제공자였다. 이는 곧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운명을 대변하는 아버지상으로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죽는 날 까지 자식들을 앞에 놓고 ‘조선인이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일관해 온 아버지 상이기도 했다.

작품 『유역으로』는 초기작품에서 반복되었던 재일조선인의 암울한 현실과 분단조국의 비극과 같은 어두운 작품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분단조국의 현실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조선민족 문제의 차원을 넘어 지금 우리의 삶이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회성은 2007년 제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초청 특별강연¹⁸⁾에서 스스로를 ‘디아스포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유민의식은 작품

17) 한진 「공포」 『레닌기치』 1989년 5월23~5월31일

18) 이회성 「나의 삶, 나의 문학-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2007년 10월5일

『유역으로』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역으로』는 정주국 일본과 조국,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 사할린 사이의 역사적인 문제를 의식하면서 재일디아스포라로서 느끼는 고향을 앞장서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표면적으로 ‘37년 문제’라는 과거, 역사, 민족을 취재해 가는 과정이지만 춘수의 ‘여행의 경험’과 ‘기억의 경험’은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를 둘러싼 증언과 함께 확장된 의미의 재일디아스포라 서사를 풀어내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춘수는 상대적으로 현재와 문화, 인간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설을 쓸 수 없었던 내면의 갈등을 고백과 대화를 통해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초기 이회성 문학은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민족과 조국, 국가라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의 틀 속에서 항상 민족적 아이덴티티 문제로 고뇌하는 재일조선인을 그려왔다. 그러나 『유역으로』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 민족과 조국의 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회성의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작가의 창작의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구상력을 보여주는 후기 이회성 문학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参考文献】

- 김중희(2010)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김환기(2011) 「재일 코리안 문학과 디아스포라-이회성의 『유역』을 중심으로 『일본학』 제32집
 박명진(2004)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서사의 특징-극작가 한진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 32권
 신인섭(2011)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대회(2011년 12월 17일) 요지집
 정은경(2010) ‘국민’과 ‘비국민’-이회성 작품에 나타난 20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루트와 네러티브- 『어문논집』 제45집
 金贊汀(1989)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上)」 『民涛』 9号
 金贊汀(1990)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下)」 『民涛』 10号
 菅野昭正、坂上弘、井口時男(1992) 創作合評 「流域」 李恢成 『群像』 4月
 竹田青嗣(1995) 『<在日>という根拠』 ちくま学芸文庫
 文京洙(2005) 『韓国現代史』 岩波新書
 李恢成(2006) 『<在日>文学全集4』 磯貝治良、黒古一夫編 勉誠出版
 和田逸夫(1993) (李恢成 「流域へ」) 「民族の再生と生き方の模索」 『民主文学』 6月

要 旨

本稿では、小説の時間的背景になっている一九八〇年代後半の時代や歴史を念頭において『流域へ』の一ヶ月間の取材旅行の意味を分析する。具体的に、初出から二〇一〇年の文庫本『流域へ』への移動関係を考察し、時代による創作表現の変化を検討する。また高麗人の証言を通じて「在日」の象徴的な意味を分析する。そこから個人の記憶が在日ディアスポラの記憶としてどのように拡散していくのかを読む。『流域へ』の中で時間や空間を行き来する主人公の認識は「旅行の体験」と「記憶の中の経験」が混合され、象徴的に語られている。また主人公は「三七年問題」という過去、歴史、民族を取材していく中で現在、文化、人間を発見し、自分の内面の葛藤を告白や対話を通じて回復していくのである。

李恢成の初期作品は在日朝鮮人の民族や祖国、国家という政治的、理念的枠組みから出発し、いつも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が主題となった。しかし『流域へ』はその境界を越えて民族と祖国の枠組みを別の視座から読むことを試みている。このような李恢成の時代や歴史をみる観点の変化、また創作意識の変化は『流域へ』の主題意識と関連して新しい想像力と構想力を示す後期李恢成文学の転換点である。

キーワード：在日朝鮮人文學・李恢成・ディアスポラ・高麗人・流域・記憶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